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0.21(금) ~ 2022.10.27(목)

제공일시 2022 11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0.21(금) ~ 2022.10.27(목)

제공일시 2022 11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203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 배출제로 규정 제출

-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줄이겠다는 '핏포 55(Fit for 55)'의 일환으로 건물을 탈탄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성능규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 이 제안은 2021년 12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했는데, 2030년 신축건물 넷제로, 2050년까지 기존건물 탈탄소화가 목표임
- 건물은 가장 탄소중립이 어려운 곳 중 하나이지만, 건물은 EU 소비 에너지의 40%,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차지하며,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의 80%가 난방, 냉각, 온수에 사용됨
- EU이사회는 또 2028년부터 공공기관이 소유한 신규 건물을 배출제로 건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음
- 또 2026년 말까지 25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신규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 2029년 말까지 모든 신규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배치해야 한다는 요건도 구상중임

(ESGToday, 2022.10.25) Emily Shain

2. EU, 초미세먼지 허용치 절반 이하로... 대기·수질오염 규칙 강화, 제약사와 화장품사 주목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최대 허용 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에 처리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내용의 강화된 대기·수질 오염 규칙을 제안했음
- EU 집행위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연간 한도를 현재 $25\mu\text{g}/\text{m}^3$ 에서 2030년까지 $10\mu\text{g}/\text{m}^3$ 로 낮추겠다고 밝혔음
-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대기오염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임 수질 개선 대책에는 제약사나 화장품 제조사 등이 폐수 처리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음
- 또,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나 영구적인 오염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 25개의 새로운 오염 물질을 유해 물질로 지정했음 일각에선 이번 규칙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음

(경향신문, 2022.10.27) 박용하 기자

3. EU, 내년 기후변화목표 상향 조정에 합의

- COP27 당사국 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관련, EU의 기후장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목표를 올리기로 합의했음
-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새로운 목표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세계 3위 오염국인 EU의 27개국은 '가능한 한 빨리' 목표치를 상향조정키로 약속했음
- EU가 12개의 배출가스 감축법 협상을 마칠 때까지는 상향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 협상은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음
- 이외에도 EU의 탄소시장을 정비하는 12개 법안의 마감이 곧 다가올 예정이며, EU는 또 이번 COP27의 최대 현안인 개도국 '손실과 피해' 보상 또한 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음

(Reuters, 2022.10.25) Kate Abnett, Bart H. Meijer 기자

1. 美 에너지부, 풍력에너지 지원 위해 2800만 달러 지출

- 미국 에너지부는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육상과 해상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을 낮추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3000만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음
- 에너지부의 자금은 4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데, 970만달러(약 140억원)는 장거리 해상풍력 으로부터 대량의 전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690만달러(약 99억원)는 사회 과학 연구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연안 지역사회가 연안 풍력 개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돕는 프로젝트에 사용됨
- 또, 지역사회에서 분산 풍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30만달러를 사용하고, 800만달러(약 115억원)는 박쥐가 풍력 터빈을 피하는 기술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더구루, 2022.10.22) 김소연 기자

2. “日, 원자력 등 발전소 건설시 20년간 수입 보증 방침”

- 일본 정부가 원자력·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장기적인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할 방침임
-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가 이러한 발전소 건설을 할 경우, 향후 20년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여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발전소 사업 전망을 세우기 쉽도록 고쳐 신설을 촉진하고, 전력 부족 개선을 꾀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심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2023년도에 관련 방침을 도입할 전망이다 발전소 운전 시작일에서 원칙적으로 20년간 수입을 보증하는 것을 상정할 예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배터리 발전소 신설도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뉴시스, 2022.10.24) 김예진 기자

3. 전쟁발 에너지 위기 속… 캐나다, 차세대 소형 원전에 1조 92억원 투자

- 캐나다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해, 지역 전력기업에 9억 7000만 캐나다달러(약 1조92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음
-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캐나다인프라은행(CIB)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온타리오발전(OPG)에 9억 70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여,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CIB의 투자 중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소유한 전력기업 OPG는 온타리오주 달링턴 원전단지 인근에 SMR 건설을 추진 중임
-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OPG가 목표대로 SMR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G7 중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서울경제, 2022.10.26) 김태영 기자

1. 구글, 24시간 365일 무탄소 에너지 구축 위해 런던, 파리 등과 제휴

- 100개 가량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기후 네트워크인 C40과 구글은 도시가 24시간 내내 청정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24/7 CF(Carbon-Free) 에너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5% 이상, 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구글이 도시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전략, 광행,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돕는 걸 목표로 함
- 이 프로젝트는 런던, 코펜하겐, 파리 등 초기 시범도시에서 적용하며, 청정에너지 조달,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가장 풍부한 시간대 에너지 사용 전환, 미니 그리드와 배터리 저장을 통한 지역 청정에너지 확대 등 지역 혹은 도심 중심의 에너지 솔루션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구글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90만달러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이 구글에너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그리드와 배터리,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을 통합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표준을 잡겠다는 비즈니스적인 야심도 큰 것으로 보임

(ESGToday, 2022.10.21) Mark Segal 기자

2. 벤츠,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든 패션 제품 출시... 업사이클링 실천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폐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사례가 늘고 있음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00% 재활용(recycling) 폴리에스터·폴리아미드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 총 21종(의류 9종, 모자 11종, 가방 1종 등)의 제품을 론칭했으며, 모든 제품은 100%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만들어졌음
- 벤츠코리아 역시 플라스틱뱅크의 소셜 플라스틱 소재와 37.5테크놀로지의 리사이클링 폴리에스테르 등 소재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며, 내년에는 타이어와 안전벨트 등 수명을 다한 차량 관련 소재를 활용해 만든 제품을 출시할 계획임

(조선비즈, 2022.10.26) 연선옥 기자

3. “美석유사 옥시덴탈, 세계최대 탄소제거 공장 착수”

- 미국 거대 석유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Occidental Petroleum)'과 캐나다 신생 기업 '카본 엔지니어링(Carbon Engineering)'이 연간 50만톤의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할 능력을 갖춘 공장 건설에 착수했음
- 옥시덴탈 최고경영자(CEO)인 비키 홀럽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의 부지에 건설될 세계 최대 CO2 포집 공장 기공식은 다음 달 29일에 열리며, 가동은 2024년 말에 시작될 예정임
- 이 공장은 산업에서 나온 CO2나 대기 중의 초과 CO2를 공기 중에서 직접 회수해 제거하는 직접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DAC) 방식을 활용할 계획임
- 옥시덴탈이 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CO2뿐 아니라 대기 중의 초과 CO2나 산업에서 나오는 CO2까지 포집해 처리하는 기술을 상용화하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상당한 진전이 기대됨

(연합뉴스, 2022.10.27) 유철중 기자

1. SK에코플랜트, 이산화탄소 자원화 연구 착수

-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1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심상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환경에너지사업소 (폐기물 소각시설) 배기가스의 생물전환 CCU(탄소 포집·활용)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연구에 본격 착수함
- 연구팀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미세조류를 배양한 뒤, 가공을 통해 플라스틱 대체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음
- 이는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함
- 이외에도 SK에코플랜트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미세조류를 건조해 식물체 바이오매스를 20% 이상 함유하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이투뉴스, 2022.10.24) 채제용 기자

2. GS건설, 친환경 ESG경영 활동 지속…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기술개발 나서

- GS건설은 에코프로에이치엔과 ‘암모니아 기반 저탄소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나섰다
-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고효율 암모니아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기술을 공동개발할 예정임
- GS건설은 기존 플랜트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을 위한 반응기와 공정 개발을,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친환경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고효율 통합 촉매 개발을 맡게 됨
- 이번 MOU는 암모니아를 반응기에서 고효율 촉매와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생산기술을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2026년까지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파일럿(Pilot) 설비 건설 및 운영을 목표로 함

(뷰어스, 2022.10.25) 정지수 기자

3. SK케미칼 “재활용 소재 용기 늘리자”… 국내외 식품업체와 협력 확대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SK케미칼이 식품업계와 손잡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정부가 물리적 재활용 페트를 식품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가 올해부터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식품접촉 용기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에서 기인함
- SK케미칼은 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2024년까지 울산 2공장에 1000억원을 투자해 11만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페트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함
- 국내는 물론 해외 식품업체와도 재생원료 사용 용기를 적용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스카이펫 CR’을 공급하여 제주삼다수 생산 체계를 구축함

(서울경제, 2022.10.24) 양지윤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0.21(금) ~ 2022.10.27(목)

제공일시 2022.11.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유럽, 탄소중립 건물 위한 행동계획 발표... 미국은 녹색에너지 투자활성화 위해 세부규칙 마련

-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55%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인 'Fit For 55(핏포55)'의 일환으로, 건물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성능 규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을 넷제로로 만들고 2050년까지 탄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집행위원회는 1년간 합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EPBD)'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이에 따르면, 2030년 1월 이후 짓는 모든 신축 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함. 탄소중립 건물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소량의 에너지로 고도의 에너지 성능을 발휘하는 것임. 공공 부문이 소유하거나 새로 짓는 건물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됨. 기존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김
- 건물은 탄소배출의 주요 원천이고 한번 건축되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주요 탄소 감축원 중 하나임.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건물은 EU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40%, 에너지 부문 탄소배출의 36%를 차지함
- 개정하는 EPBD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2050년까지 공공·민간 주택·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Renovation Action Plans)'을 작성해야 함.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에는 5년 주기로 제출함
- 행동계획에는 자국 내 건물 현황, 연간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저효율 건물 분류, 리노베이션 장애요인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함. 또, 건물 형태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리노베이션 비율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관련 당국의 지원 조치를 담아야 하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2030년·2040년·2050년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함
- EPBD의 중심에는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이 있음. MEPS는 에너지 비효율적 건물을 진단하는 기준임. 2027년 1월까지 모든 상업용·공공 건물은 MEPS에 따라 최소한 F등급을 받아야 하고, 2030년 1월 1일까지는 E등급에 도달해야 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250㎡ 이상의 모든 신규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에, 그리고 2029년 말까지 모든 신규 주거용 건물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배치한다는 요건도 구상 중임. 또, 현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리노베이션 이력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 리노베이션 항목 등을 담은 '리노베이션 패스포트'도 도입하기로 함
- 미국 재무부(DOT)는 녹색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인센티브 약 2700억달러(약 385조원)에 대한 세부 규칙을 개발하려 클린 파워(clean power) 그룹, 유틸리티, 노조 등과 회의를 시작했다고 로이터가 26일(현지시각) 보도함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이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16개 산업 단체, 2000개 이상의 전력회사, 100만명 이상의 미국인 근로자를 만났다고 미 재무부(DOT)가 밝힘

(인팩트는, 2022.10.28) 박지영 기자

(인팩트는, 2022.10.28) 홍명표 기자

- 녹색에너지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한 새 규칙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음. 새 규칙은 풍력, 태양광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 30%인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함. 또, 탄소 포집에 대한 인센티브와 무배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1069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 이 규칙은 미국 공장에서 태양 전지판이나 배터리 같은 부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도 포함함
- 아울러, 새 규칙은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세 공제 연장 ▲탄소 포집 및 격리 크레딧의 확장 및 확장 ▲원자력 및 수소 발전의 생산 크레딧 ▲바이오디젤에 대한 크레딧 확대 및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함
- 전력 인버터, 배터리 및 기타 태양광 설비용 장치 공급업체인 인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 Inc.)는 25일(현지시각) 내년부터 미국에서 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내 생산품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 공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거의 밝히지 않음
- IRA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급을 돕기 위해, 연속 3년 동안 평균 조정 재무제표 수익을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 보고하는 미국 내 기업에 15%의 대체 최저 세금과 공기업의 특정 주식 환매에 대한 1%의 소비세를 추가함
- 릴리 바첼더(Lily Batchelder) 세무정책 차관보는 로이터에 적어도 6차례의 원탁회의가 열린다며, 이는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이번 원탁회의는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이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금 공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청정 차량 공제 같은 주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하는 6개의 통지(notice)를 발표하면서 열리는 것임
- 6개의 통지는 ▲청정 차량 세금 공제 ▲제조에 대한 에너지 보안 세금 공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인센티브 ▲특정 에너지 발전 인센티브 ▲세금 공제의 선택적 지급 및 이전 ▲임금, 견습, 미국 내 콘텐츠 및 에너지 커뮤니티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